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 건 오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재무 현황 ····· 1
가. 자산·부채·자본 규모 ····· 1
나. 자산·부채·자본 구성 및 증감 ····· 3
2. 손익 현황 ····· 10
가. 수입 · 비용 규모 ····· 10
나. 수입 · 비용의 구성 ····· 12
다. 이익잉여금 처분(안) ····· 14

Ⅱ. 검토 의견 ····· 15
1. 전반적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15
2. (수입)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22
3. (수입) 방송광고시장 축소 추세에 따른 방송광고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5
4. (수입) OTT 콘텐츠 판매 수입 제고 등 기타방송사업 수입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8

5. (수입) 콘텐츠 해외 수출 및 글로벌 OTT 운영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31

6. (비용) 수입감소 추세에 따른 AI 기술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자구책 마련 필요 ····· 34

7. (비용)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비용 추산 및 대책 마련 필요 ··· 37

8.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을 준수할 필요 ····· 39

9.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 개선 필요 ····· 42

【 참고자료 】 ····· 44

1. 2022회계연도 KBS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44

2. KBS 현황 ····· 64

Ⅰ. 결산개요

1 재무 현황

가. 자산·부채·자본 규모

○ 2023년 말 한국방송공사(KBS)의 자산은 1조 2,784억 원, 부채는 5,774억 원, 자본은 7,010억 원임.

< KBS 재무상태(2023년) >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증감률
자산	**자 산 합 계**	**12,784**	**13,952**	**-1,168**	**-8.4**
	유동자산	3,011	3,921	-910	-23.2
	비유동자산	9,773	10,031	-258	-2.6
부채와자본	**부 채 합 계**	**5,774**	**6,290**	**-516**	**-8.2**
	유동부채	1,560	1,946	-386	-19.9
	비유동부채	4,214	4,344	-130	-3.0
	자 본 합 계	**7,010**	**7,662**	**-652**	**-8.5**
	자본금	2,062	2,062	-	-
	자본잉여금	-12	-12	-	-
	자본조정	-13	-1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1	240	-99	-41.3
	이익잉여금	4,832	5,385	-553	-10.3
	부채와 자본 합계	**12,784**	**13,952**	**-1,168**	**-8.4**

주: 자본금 2,062억 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
자료: KBS

○ 최근 5년 간 재무상태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자산, 부채, 자본은 전반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23년의 경우 2022년에 비해 자산, 부채, 자본 모두 감소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부채는 5,774억원으로 2022년(6,290억원)보다 516억원 감소하였고, 2023년 말 기준 자본은 7,010억원으로 2022년(7,662억원)보다 652억원 감소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자산은 1조 2,784억원으로 2022년 자산 1조 3,952억원 대비 1,168억원 감소하였음.

< 재무상태 변동 추이표(2018~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전년 대비 증감
부채(A)	5,572	6,000	428	5,511	-489	5,773	262	6,290	517	5,774	-516
자본(B)	6,748	6,890	142	7,216	326	7,768	552	7,662	-106	7,010	-652
자산(A+B)	12,320	12,890	570	12,727	-163	13,541	814	13,952	411	12,784	-1,168

나. 자산·부채·자본 구성 및 증감

(1) 자산의 구성 및 증감

○ 2023년도 말 기준 자산은 1조 2,784억원으로, 유동자산[1] 3,011억원(23.6%)과 비유동자산[2] 9,773억원(76.4%)으로 구성됨.

< 자산의 구성비(2022·2023년) >

(단위: 억원, %)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 합계 (A+B)
		당좌 자산	재고 자산	계(A)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계(B)	
2022년	금 액	3,830	91	3,921	3,953	5,483	15	580	10,031	13,952
	구성비	27.5	0.6	28.1	28.3	39.3	0.1	4.2	71.9	100.0
2023년	금 액	2,935	76	3,011	3,942	5,287	26	518	9,773	12,784
	구성비	23.0	0.6	23.6	30.8	41.4	0.2	4.0	76.4	100.0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895	-15	-910	-11	-196	11	-62	-258	-1,168
	증감율	-23.4	-16.5	-23.2	-0.3	-3.6	73.3	-10.7	-2.6	-8.4

1) 비교적 단기간(1년 이내)에 자금화(資金化)할 수 있는 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됨.

2) 원칙적으로 1년 내 자금화되지 않는 자산

○ 유동자산은 매출채권 감소(842억원), 현금및현금성자산 감소(32억원) 등으로 910억원이 순감하였고,
비유동자산은 유·무형자산 감소(185억원), 장기투자증권 감소(72억원) 등으로 258억원이 순감하였음.

○ 이에 총자산은 전년 대비 1,168억원이 감소하였음.

< 자산 주요 증감내역(2023년) >

구분	주요 증가 내역	주요 감소 내역	순증감
유동자산	-선급금 14억원 -단기대여금 1억원	-매출채권 842억원 -현금및현금성자산 32억원 -기타의 당좌자산 25억원 -재고자산 15억원 -유동이연법인세자산 4억원 -선급비용 4억원 -미수금 3억원	-910억원
	총 15억원 증가	총 925억원 감소	
비유동자산	-지분법투자주식 35억원 -장기대여금 26억원	-유·무형자산 185억원 -장기투자증권 72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62억원	-258억원
	총 61억원 증가	총 319억원 감소	
계	76억원 증가	1,244억원 감소	-1,168억원

○ 유동자산은 성격에 따라 당좌자산[3], 재고자산[4]으로 분류할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5], 유형자산[6], 무형자산[7], 기타비유동자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이 중에서도 2023년도 KBS의 자산은 유형자산, 투자자산, 당좌자산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3년도 유형자산은 5,287억원으로, 유형자산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2023년도 투자자산은 3,942억원으로 2017년 대비 478억원 증가하였는데, 2023년에 장기투자증권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1억원 감소하였음.

- 2023년도 당좌자산은 2,935억원으로, 당기순손실 발생(553억원) 등으로 인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32억원) 및 매출채권 감소(842억원)가 기타 자산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못해 전년 대비 895억원 감소하였음.

---

3)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4) 유동자산 중에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5)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닌 타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유휴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

6)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 기계장치, 구축물처럼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 자산

7)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

< 유형자산, 투자자산 및 당좌자산 추이(2017～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 (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	증감 (b-a)
총자산	13,210	12,320	12,890	12,727	13,541	13,952	12,784	-426
- 유형 자산	5,609	5,631	5,507	5,332	5,245	5,483	5,287	-322
- 투자 자산	3,464	3,376	3,463	3,377	3,526	3,953	3,942	478
- 당좌 자산	3,528	2,646	3,050	3,132	4,044	3,830	2,935	-593

자료: KBS

○ 참고로 투자자산의 하나인 지분법[8]적용 투자주식 현황을 살펴보면, KBS가 투자한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등 자회사와 연합뉴스의 총장부금액은 전년 대비 35억원 증가한 3,225억원이고,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2023년 당기순손실은 1,051억원 발생하였음.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현황(2022·2023년) >

(단위: 억원)

회 사 명	지분율	2022년 말	2023년 말	증 감
KBS비즈니스	100.0%	175	204	29
KBS미디어	88.8%	1,009	1,041	32
KBS아트비전	100.0%	139	143	4
e-KBS	100.0%	1,324	1,261	-63
연합뉴스	27.8%	401	438	37
KGCS문전사	40.0%	50	52	2
KBS시큐리티	100.0%	68	71	3
wavve Americas	15.2%	13	15	2
콘텐츠웨이브	1.9%	11	0	-11
합 계		3,190	3,225	35

자료: KBS

8) 자회사(피투자회사)의 순손익을 보유지분만큼 모회사(투자회사)의 경영 실적에 반영하는 제도

<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2023년) >

(단위: 억원)

회 사 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KBS비즈니스	349	132	666	27
KBS미디어	1,802	630	2,811	55
KBS아트비전	272	129	1,009	6
e-KBS	1,396	136	117	-54
연합뉴스	2,058	481	1,796	84
KGCS문전사	130	0	0	15
KBS시큐리티	117	46	334	5
wavve Americas	201	102	867	6
콘텐츠웨이브	2,944	3,212	3,339	-1,195
합 계	9,269	4,868	10,939	-1,051

자료: KBS

(2) 부채·자본의 구성 및 증감

○ 2023년도 부채는 5,774억원으로, 유동부채 1,560억원과 비유동부채 4,214억원으로 구성됨.

○ 2023년도 자본은 7,010억원으로, 자본금 2,062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1억원, 이익잉여금 4,832억원 등으로 구성됨.

○ 부채와 자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부채가 45.2%, 자본이 54.8%로서, 부채 비중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임.

< 부채 · 자본의 구성비(2022·2023년) >

(단위: 억원, %)

구 분		부 채			자 본						합계 (A+B)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계(A)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계(B)	
2022년	금 액	1,946	4,344	6,290	2,062	-12	-13	240	5,385	7,662	13,952
	구성비	13.9	31.1	45.1	14.8	-0.1	-0.1	1.7	38.6	54.9	100
2023년	금 액	1,560	4,214	5,774	2,062	-12	-13	141	4,832	7,010	12,784
	구성비	12.2	33.0	45.2	16.1	-0.1	-0.1	1.1	37.8	54.8	100
증감	금 액	-386	-130	-516	0	0	0	-99	-553	-652	-1,168
	증감율	-19.8	-3.0	-8.2	0.0	0.0	0.0	-41.3	-10.3	-8.5	-8.4

자료: 2023회계연도 KBS 결산서

○ 부채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감소(183억원) 및 미지급금 감소(157억원) 등으로 386억원이 순감하였고, 비유동부채는 기타의비유동부채 감소(258억원) 등으로 130억원이 순감하였음.

< 부채의 주요 증감내역(2023년) >

구분	주요 증가 내역		주요 감소 내역		순증감
유동부채	-미지급법인세 -선수수익	38억원 5억원	-매입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183억원 157억원 62억원 27억원	-386억원
	총 43억원 증가		총 429억원 감소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국민연금전환금 -퇴직보험예치금	122억원 1억원 5억원	-기타의비유동부채	258억원	-130억원
	총 128억원 증가		총 258억원 감소		

자료: 2023회계연도 KBS 결산서

2 손익 현황

가. 수입 · 비용 규모

○ KBS의 2023년도 총수입[9]은 1조 4,244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5,257억원 대비 1,013억원(6.6%) 미달하였고, 전년보다는 1,061억원(6.9%) 감소하였음.

○ 한편, KBS의 2023년도 총비용[10]은 1조 4,797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5,254억원보다 457억원(3.0%) 적고, 전년보다는 626억원(4.1%) 감소하였음.

○ 수입에서 비용과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손실은 553억원으로, 당초 예상치 3억원 대비 556억원 미달됨.

< KBS 손익 현황(2023년) >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결산(a)	2023		예산 대비 결산		전년 대비	
		예산(b)	결산(c)	결산액 (c-b)	비율(c/b)	증감액 (d=c-a)	증감율(d/a)
수입(A)	15,305	15,257	14,244	-1,013	93.4	-1,061	-6.9
비용(B)	15,481	15,254	14,722	-532	96.5	-759	-4.9
세전이익 (A-B)	-176	3	-478	-481	-15933.3	-302	-171.6
법인세비용(C)	-58	-	75	75	-	133	-229.3
당기순이익 (A-B-C)	-118	3	-553	-556	-18433.3	-435	-368.6

자료: KBS

9) 총수입 = 매출액(사업수입) + 사업외 수입

10) 총비용 = 매출원가(사업비) + 판매비와 관리비 + 사업외 비용 + 법인세비용

○ 수익구조를 사업순익과 사업외순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3년도 사업부문에서 645억원의 손실, 사업외 부문에서는 167억원의 이익이 각각 발생하였음.

○ 사업 부문에서는 2019년에 해당 기간 내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이후 영업손실 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지상파 광고시장 규모 축소 및 프로그램 부진으로 인하여 2023년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사업외 부문에서는 관계사 지분법이익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

< KBS 손익 구조(2018~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사업순익	△585	△759	△140	△71	△90	△645	△2,290
사업외순익	264	784	548	232	△86	167	1,909
법인세	-	9	81	△232	△58	75	-125
당기순이익	△321	16	327	393	△118	△553	-256

자료: KBS

○ 참고로, 2023년 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비교해 보면, KBS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553억원인 반면, MBC는 966억원, SBS는 31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발생하였음.

< 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순손실) 현황(2018~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KBS	△321	16	327	393	△118	△553
MBC	△1,093	1987	△267	1,773	59	966
SBS	15	33	△782	1,077	1,204	316

자료: KBS

나. 수입·비용의 구성

○ 2023년 수입 1조 4,244억원 중 1조 3,865억원(97.3%)은 매출액이 차지하고, 매출액은 전년대비 960억원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중 6,851억원(매출액 대비 49.4%)은 수신료수입임.

○ 2023년 비용 1조 4,797억원 중 매출원가가 1조 2,537억원(84.7%)이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1,973억원(13.3%), 사업외비용 및 법인세비용이 287억원(2.0%)임.

< 수입·비용의 구성비(2022·2023년) >

(단위: 억 원, %, %p)

구 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수입	매출액	금 액	14,825	13,865	-960
		구성비	96.9	97.3	-0.4
	사업외수입	금 액	480	379	-101
		구성비	3.1	2.7	-0.4
	계	금 액	15,305	14,244	-1,061
		구성비	100.0	100.0	0.0
비용	매출원가	금 액	12,787	12,537	-250
		구성비	82.9	84.7	1.8
	판매비와 관리비	금 액	2,128	1,973	-155
		구성비	13.8	13.3	-0.5
	사업외비용	금 액	566	212	-354
		구성비	3.7	1.4	-2.3
	법인세비용	금 액	-58	75	133
		구성비	-0.4	0.6	1.0
	계	금 액	15,423	14,797	-626
		구성비	100.0	100.0	0.0
당기순이익(금액)			-118	-553	-435

자료: KBS

다. 이익잉여금 처분(안)

○ KBS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39조(손익금의 처리)[11]에 따라 처리하는데, KBS는 2023회계연도 당기순손실 553억 원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할 계획임.

○ KBS의 이익잉여금 처분(안)은 우리 위원회의 결산 승인에 따라 확정[12]되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 KBS의 이익잉여금 처분(안)(2023년) >

(단위: 억 원)

구 분	처분 전	당기처분	처분 후	비 고
이익준비금	1,031	-	1,031	• 자본금의 1/2까지 이익금의 2/10 이상 적립 : 완료
기업발전적립금	2,037	-	2,037	• 법인세법 제56조 : 2001.12.31 폐지
기업합리화적립금	90	-	90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2002.12.11 폐지
사업확장적립금 등	1,900	-553	1,347	• 공사 정관 제39조
국고납입(배당)	-	-	-	• 기획재정부 배당 통보
합 계	5,058	-553	4,505	

자료: 한국방송공사

11)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3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4. 사업확장적립금등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의 납입
② 공사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등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법정적립금, 동항 제4호의 사업확장적립금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12) 「방송법」 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Ⅱ. 검토 의견

1 전반적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광고수입의 대폭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553억원 발생하여 2023년도 경영지표가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장기적인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수익성지표 분석

○ KBS의 2023년 매출액 순이익율은 -4.0%,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7.9%, 총자산 순이익률은 -4.3%로, 전년도 대비 각각 3.2%p, 6.4%p, 3.4%p 감소하였음.

○ 2023년 지상파 방송 3사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4.2%, 자기자본 순이익률 0.2%, 총자산순이익율 0.8%로, KBS는 지상파 3사 가운데서 수익성 지표가 가장 낮은 수준임.

< 지상파 3사의 수익성 지표(2021~2023년) >

(단위: %, % p)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KBS	(전년 대비)	MBC	SBS	방송3사 평균	KBS	MBC	SBS	KBS	MBC	SBS
매출액 순이익율	-4.0	-3.2	13.0	3.6	4.2	-0.8	0.7	11.9	2.7	22.8	11.8
자기자본 순이익율	-7.9	-6.4	4.3	4.3	0.2	-1.5	0.3	17.0	5.1	8.3	18.1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KBS	(전년 대비)	MBC	SBS	방송3사 평균	KBS	MBC	SBS	KBS	MBC	SBS
총자산 순이익율	-4.3	-3.4	4.0	2.7	0.8	-0.9	0.2	9.8	2.9	7.0	9.0

주: 1)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2) 자기자본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3) 총자산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료: KBS, MBC, SBS

○ 이러한 수익성 지표의 악화는 2023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는 방송광고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매출액(1조 3,869억원)이 2022년 대비 960억원 감소하였고,
2022년 스포츠 빅이벤트 비용 소멸 효과 등으로 방송제작비가 2022년 대비 303억원 감소하여 사업손실 645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553억원 발생하였음.

< KBS의 손익 구조(2020~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순익	△140	△71	△90	△645
사업외순익	548	232	△86	167
법인세	81	△232	△58	75
당기순이익	327	393	△118	△553

자료: 한국방송공사

○ 2022년 이후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후술하듯 수신료 수입 및 방송광고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방송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성장성지표 분석

○ KBS의 2023년 성장성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6.5%, 총자산 증가율이 -8.4%, 자기자본증가율이 -8.5%로, 각각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자기자본증가율의 감소는 2023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에서 기인하며, 이는 사업확장적립금에서 보전할 예정임.

< 최근 3년(2021~2023년) KBS의 성장성 지표 >

(단위: %,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	7.0	1.7	△6.5	-8.2
	총자산 증가율	6.4	3.0	△8.4	-11.4
	자기자본증가율	7.6	△1.4	△8.5	-7.1

주: 1) 매출액 증가율: 당기말 매출액/전기말 매출액
2)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
3) 자기자본 증가율: 당기말 자기자본/전기말 자기자본
자료: 2023회계연도 KBS 결산서

○ KBS의 자산 중 유동자산은 3,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억원(23.2%) 감소하였고, 비유동자산은 9,7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억원(2.6%) 감소하였음.

- 유동자산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소폭 감소하였고, 매출채권은 2022년부터 지연되었던 재송신료 단가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기타 유동자산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음.

- 비유동자산 항목의 경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가치 하락 등으로

11억원(0.3%) 감소하였고, 유형자산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등으로 196억원(3.6%) 감소하였음.

< 최근 3년의 자산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a)	2023년(b)	증감(b-a)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79	417	385	△32
매출채권	1,678	2,898	2,056	△842
기타당좌자산	587	515	494	△21
단기투자자산	900	-	-	-
재고자산	55	91	76	△15
유동자산 소계	4,099	3,921	3,011	△910
투자자산	3,526	3,953	3,942	△11
유형자산	5,245	5,483	5,287	△196
기타비유동자산	671	595	544	△51
비유동자산 소계	9,442	10,031	9,773	△258
자산총계	**13,541**	**13,952**	**12,784**	△1,168

자료: 2023회계연도 KBS 결산서

다. 생산성지표 분석

○ KBS의 2023년 부가가치율은 42.1%, 총자본투자효율은 45.7%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액보다 매출액 감소율이 컸기 때문임. 2023년도 부가가치액[13] 5,841억원은 전년도 6,010억원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도 1조 4,825억원에서 1조 3,865억원으로 6.5% 감소하였음.

○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1인당 매출액 또한 3억 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KBS의 생산성 지표(2019년~2023년) >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가가치율	48.1	49.8	45.8	40.5	42.1
총자본 투자효율	50.9	53.3	49.3	43.1	45.7
1인당 매출액	288	299	333	357	343

주: 1)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매출액) x 100
2) 총자본 투자효율 : (부가가치액/총자본) x 100
자료: KBS

13) 부가가치액=세전이익+인건비+금융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임차료+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라. 안정성지표 분석

○ KBS의 2023년 유동비율은 193.0%, 당좌비율은 188.1%, 부채비율은 82.4%로 전년보다 하락하여 안정성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이 2022년도에 비해 감소(각각 23.2%와 23.4%)한 것에 기인함.

○ 또한, 고정장기적합율은 87.1%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 방송3사의 안정성 지표(2021～2023년) >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KBS	MBC	SBS	KBS	MBC	SBS	방송3사 평균	KBS	MBC	SBS
유동비율	229.3	282.7	149.1	201.4	275.1	181.5	217.0	193.0	342.4	133.6
당좌비율	226.2	281.5	148.7	196.7	273.9	180.9	661.5	188.1	340.2	133.2
고정장기적합율	80.3	81.4	76.7	83.6	81.2	74.5	86.0	87.1	84.8	86.2
부채비율	74.3	17.7	101.2	82.1	14.6	73.2	49.9	82.4	7.0	60.2

주: 1) 유동비율[14]: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2) 당좌비율[15]: (당좌자산/유동부채)× 100
3) 고정장기적합률[16]: [비유동자산/(자기자본+비유동부채)]× 100
4) 부채비율[17]: (부채총계/자기자본)× 100

자료: 한국방송공사

14)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보유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15) 당좌비율은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즉각적인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임.

16) 고정장기적합률은 보유자산의 고정화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우량한 기업임.

17) 부채비율은 부채 대 자본의 비율로 타인 자본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음.

마. 종합 분석

○ KBS의 2023년 수익성 지표를 보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4.3%,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7.9%, 매출액 순이익률은 -4.0%로 전년도 대비 각각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성장성 지표를 보면, 매출액증가율은 -6.5%, 총자산증가율은 -8.4%, 자기자본증가율은 -8.5%로, 전년보다 각각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을 살펴보면, 각각 42.1%, 45.7%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가가치율이 상승한 것은 매출액이 부가가치액보다 더 높은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산성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안정성지표인 유동비율은 193.0%, 당좌비율은 188.1%, 자기자본비율은 54.8%, 부채비율은 82.4%로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광고수입의 대폭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553억원 발생하여 2023년도 경영지표가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장기적인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수입)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총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료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한국방송공사의 경영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KBS는 「방송법」 제56조[18]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19]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공사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2023년 KBS 수신료 수입은 6,851억원임.

- 이는 당초에 편성하였던 예산액 7,020억원보다 169억원 미달하는 수준이고, 2022년도 수신료수입보다 83억원(△1.2%) 감소한 수준임.

○ 수신료수입이 KBS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도 결산 기준 45.3%, 2023년도 결산 기준 48.1%로, KBS는 총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수신료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18) **「방송법」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19)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KBS 수신료수입 현황(2023년) >

(단위: 억원, %)

과목	2023년 예산 (A)	2023년 결산 (B)	2022년 결산 (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수신료수입(a)	7,020	6,851	6,934	-169	97.6	-83	△1.2
총수입(b)	15,257	14,244	15,305	-1,013	93.4	-1,061	△6.9
비중(a/b)	46.0	48.1	45.3	-	-	-	-

자료: KBS.

○ 한편, 수신료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12일에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20]되면서, 종전에는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하였던 것을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징수절차가 변경되었음.

○ 이후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2024년 6월까지 임시 조치 기간으로 하고,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시행하고 있음.

- KBS에 따르면, 2023년 7월 방송법 개정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분리 고지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고지하기로 협의하여 시행에 들어갔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수신료를 통합하여 납부하되 분리고지를 신청한 가구에는 별도로 KBS에서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7월분 수신료 징수 실적은 9월초에 파악될 예정임.

20)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 이에 따라, 이후 수신료 분리징수로 개별 가정 및 영업장, 분리고지를 신청한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례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도 수신료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실제 2024년도 수신료수입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신료 수입액 3,932억원은 2023년 같은 기간의 수신료 수입액 4,046억원보다 113억원(△2.8%) 감소하였음.

-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화되는 2024년 7월부터 수신료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수신료 전망치를 약 6,1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23년 수신료수입 6,851억원 보다 약 750억원 감소한 규모임.

< KBS 수신료 수입액 >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	증감률
1월	572	583	-11	△1.9
2월	550	573	-23	△4.1
3월	567	576	-8	△1.5
4월	561	578	-17	△2.9
5월	556	584	-28	△4.8
6월	567	571	-3	△0.6
7월	559	581	-22	△3.8
합계	3,932	4,046	-113	△2.8

자료: KBS.

○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총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한국방송공사의 경영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수입) 방송광고시장 축소 추세에 따른 방송광고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OTT 확대 등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라 향후에도 방송광고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방송광고수입 감소 전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S의 수입 중 방송광고수입은 방송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3년 1,967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2년 결산 2,642억원 대비 675억원(△25.5%) 감소한 금액임.

< KBS 방송광고수입 예·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과목	2023년 예산 (A)	2023년 결산 (B)	2022년 결산 (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방송광고수입	2,818	1,967	2,642	-851	69.8	-675	△25.5

자료: KBS.

○ 연도별 KBS의 방송광고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319억원에서 2021년에 2,7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22년 2,642억원(전년 대비 63억원 감, △2.3%), 2023년 1,967억원(전년대비 675억원 감, △2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KBS의 방송광고수입 추이 >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방송광고수입	2,319	2,705	2,642	1,967
증감	-	386	-63	-675
증감률	-	16.6%	△2.3%	△25.5%

자료: KBS

○ 한편, 연도별 전체 방송광고시장과 지상파TV광고시장 규모는 2021년에 중간광고가 도입되면서 2020년보다 규모가 커졌으나, 이후 점차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방송광고시장의 경우 2020년 3조 4,841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면서 4조 531억원(16.3%)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부터 4조 212억원(전년대비 △0.8%), 2023년 3조 3,076억원(전년대비 △17.7%), 2024년 3조 2,494억원(전년대비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지상파TV광고시장의 경우에도 2020년 1조 1,066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 중간광고 도입 효과로 1조 3,597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1조 3,762억원(△0.8%), 2023년 1조 756억원(△17.7%), 2024년에는 1조 676억원까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방송광고시장·지상파TV광고시장 광고비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방송	광고비	34,841	40,531	40,212	33,076	32,494
	전년 대비	△7.6	16.3	△0.8	△17.7	△1.8
지상파 TV	광고비	11,066	13,597	13,762	10,756	10,676
	전년 대비	△11.1	22.9	△0.8	△17.7	△1.8

주1: 2023년과 2024년은 예상치임.
주2: 2021년에 광고비가 증가한 것은 중간광고가 허용되었기 때문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3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2024.1.,

○ 이러한 방송광고시장·지상파TV광고시장의 매출액과 KBS의 방송광고수입의 추세가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2021년에 중간광고 도입 효과에 따라 전체 KBS를 포함한 전체 방송광고시장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방송광고시장 및 지상파TV광고시장의 2024년도 매출액 예상치도 2023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KBS의 방송광고수입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 같은 방송 및 지상파 TV 광고시장의 광고비 감소는 OTT 확대 등에 따라 디지털 광고의 방송광고시장 잠식이 가속화됨에 따른 것임.

○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OTT 확대 등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라 향후에도 방송광고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방송광고수입 감소 전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수입) OTT 콘텐츠 판매 수입 제고 등 기타방송사업 수입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기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OTT 콘텐츠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BS의 기타방송사업수입은 콘텐츠판매수입, 협찬 및 캠페인, 재송출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2023년도 기타방송사업수입 4,748억원은 예산액 4,793억원보다 45억원 미달한 수준이고, 2022년도 결산 4,934억원보다 186억원(△3.8%) 감소한 수준임.

< KBS 기타방송사업수입 예·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과목	2023년 예산 (A)	2023년 결산 (B)	2022년 결산 (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기타방송사업수입	4,793	4,748	4,934	-45	99.1	-186	△3.8

자료: KBS.

○ 기타방송사업수입은 재송신료와 재송신료 이외 콘텐츠 판매수입, 프로그램 협찬수입, 캠페인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콘텐츠판매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여기에는 OTT에 콘텐츠를 판매한 수익이 포함됨.

< 기타방송사업수입 세부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C=A-B)	증감률(C/B)
콘텐츠 판매수입	재송신료	1,498	1,341	157	11.7
	기타	2,282	2,531	-249	△9.8
	소계	3,780	3,872	-92	△2.4
프로그램 협찬수입		559	467	92	19.7
캠페인수입		184	248	-64	△25.8
기타수입		225	347	-122	△35.2
합계		4,748	4,934	-186	△3.8

자료: KBS

○ 2020년부터 KBS가 국내 OTT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판매한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99억원, 2021년 365억원, 2022년 41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2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7%가 감소하였음.

< KBS의 국내 OTT 대상 콘텐츠 판매 수입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99	365	410	202
전년 대비		166	45	-208
증감률		83.4	12.3	-50.7

주: 콘텐츠 해외수출 매출액에 해외OTT 판매액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KBS

○ 또한, KBS의 글로벌 OTT 대상 콘텐츠 판매 사례를 살펴보면, KBS는 2020년 넷플릭스에 '도도솔솔라라솔', 2021년 넷플릭스에 '연모', 2022년 디즈니플러스에 '붉은 단심', 2023년에 넷플릭스에 '혼례대첩', '고려거란전쟁' 등을 판매하였음.

○ 한편, OTT 서비스의 이용률은 2021년 69.5%, 2022년 72.0%, 2023년 77.0%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21)]

○ 이렇게 OTT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OTT시장은 KBS가 콘텐츠 판매를 통해 기타방송사업수입(콘텐츠 판매수입_기타)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글로벌 OTT에 대한 콘텐츠 판매는 한류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다만, KBS는 이에 대해 국내 및 글로벌 OTT에 콘텐츠 판매를 지속 추진 중이나, 공사 재정 여건 악화 및 급격한 제작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주된 판매 대상인 미니시리즈의 제작 편수 감소와 국내 및 글로벌 OTT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콘텐츠 판매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기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OTT 콘텐츠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2024.4., p.392

5 (수입) 콘텐츠 해외 수출 및 글로벌 OTT 운영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OTT 시장 성장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해외 판매, 유튜브 운영 등을 통해 수입의 증가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수입원 다각화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콘텐츠의 해외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과 유튜브 등 OTT 채널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선, KBS는 글로벌 OTT와 해외 각국의 로컬 OTT에 콘텐츠나 포맷을 판매하여 수익[22]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 한국방송공사의 콘텐츠 해외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57억원, 2022년 829억원(전년대비 26.2% 증가), 2023년 905억(전년대비 9.2% 증가)로 매년 해외 수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2021~2023년) 콘텐츠 해외 수출 현황 >

(단위: 억원, %)

	2021년 매출액	2022년		2023년	
		매출액	전년 대비	매출액	전년 대비
매출액	657	829	26.2	905	9.2

자료: KBS.

○ 최근 3년간 글로벌 OTT에 수출된 신작 콘텐츠를 살펴보면 Netflix에 '고려거란전쟁', '혼례대첩', '미남당' 등이 수출되었고,

22) 기타방송사업수입으로 집계됨.

Disney+에는 ‘붉은 단심’,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가, Amazon Prime Video에는 ‘가슴이 뛴다’ 가 수출되었음.

○ 로컬 OTT에는 Viki(미주·유럽·중동 등)에 ‘오아시스’, ’함부로 대해줘’ 등이 수출되었고, Viu(동남아 등)에 ‘혼례대첩’,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이 수출되었음. 또한, U-NEXT(일본)에 ‘법대로 사랑하라’, ‘환상연가’, ‘멱살 한번 잡힙시다’ 등을 수출하였고, Wavve Americas (미주, 남미)에 ‘법대로 사랑하라’, ‘두뇌공조’ 등이 판매되었음.

○ KBS는 콘텐츠를 해외 현지에서 리메이크하여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수출하는 포맷 수출의 형태로도 수출하였는데, 최근 3년간 판매된 대표적인 포맷 수출 컨텐츠로 ‘굿닥터’(미국 ABC, 중국 MangoTV), ‘국민여러분’(미국 ABC), ‘살림하는 남자들’(중국 iQIYI), ‘1박2일’(베트남 HTV7) 등이 있음.

○ 또한, KBS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하여 일부 수익[23]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KBS가 유튜브를 통하여 창출한 수익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85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 229억원, 2022년 243억원으로 성장을 지속하였음. 하지만 2023년에는 226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부 수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23) 기타방송사업수입으로 집계됨.

< 최근 5년(2019~2023년)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내역 >

(단위: 억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익액	전년 대비	수익액	전년 대비	수익액	전년 대비	수익액	전년 대비
수익액	85	175	107.1	229	31.0	243	6.1	226	-7.0

자료: KBS.

○ 이러한 콘텐츠 해외 판매 수익과 유튜브 운영 수익은 그 자체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와 제작비 급등에 따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국내 방송 환경에 비해 K-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향후 수익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수입원을 다양하게 해주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OTT 시장 성장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해외 판매, 유튜브 운영 등을 통해 수입의 증가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비용) 수입감소 추세에 따른 AI 기술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자구책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수입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으로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제작·서비스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신규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손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KBS의 2023년도 총비용은 1조 4,797억원으로 당초 예산 1조 5,254억원 대비 457억원 절감한 규모이고, 2022년 대비, 626억원(△4.1%) 감소한 수준임.

< KBS 총비용 예·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과목	2023년 예산 (A)	2023년 결산 (B)	2022년 결산 (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총비용	15,254	14,797	15,423	-457	97.0	-626	△4.1

자료: KBS.

○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 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유형자산을 처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

○ 인건비 측면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보직자 임금반납(임원 30%, 국장 20%, 부장 10%)을 시행 중이고, 2024년에는 2월(87명), 8월(실시 중)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연차휴가 전일 사용 촉진에 따라 수당을 미지급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있음.

○ 2023년 인건비는 4,890억원으로 2022년 대비 78억원 증가하였는데, KBS는 인건비 절감의 경우 20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2023년에는 절감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 KBS 인건비 절감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B)	2023년(A)	증감(C=B-A)	2024년 상반기
인건비	4,812	4,890	78	2,364

자료: KBS.

○ 다만, 2024년 상반기 기준 인건비가 2,364억원으로, 2022년, 2023년과 비교할 때 2024년의 경우에도 인건비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KBS는 이에 대해 2022년 상반기 인건비 2,485억, 2023년 상반기 인건비 2,524억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하였으므로, 2024년의 경우 명예퇴직과 연차휴가 전일 촉진 등의 효과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수입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신규 채용 중단은 청년 취업 기회의 축소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수입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으로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제작·서비스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신규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손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비용)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비용 추산 및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시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하고,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S의 비용 중 수신료 징수비용이 포함된 판매비와 관리비의 2023년도 결산은 1,973억원으로, 예산 대비 279억원 절감하였고, 전년 대비 155억원(△7.3%) 감소하였음.

< KBS 판매비와 관리비 예·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과목	2023년 예산 (A)	2023년 결산 (B)	2022년 결산 (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판매비와 관리비	2,252	1,973	2,128	-279	87.6	-155	△7.3

자료: KBS.

○ KBS의 수신료는 당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24]됨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절차가 변경되었음.

○ 이후 KBS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의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고지·징수하고 있고, 당초 결합하여 고지하였을 때의 수수료율 6.15%를 3.6%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음.

24)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와 결합고지 하였을 때에는 KBS가 수신료 징수액의 6.15%의 수수료를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하였는데,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시행되는 2024년 7월부터 해당 수수료율은 3.6%로 협의하였음.

- 결합고지(수수료율 6.15% 적용)하였을 때 KBS는 연간 약 460억원을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하였는데, 분리고지 이후 수신료 징수액 규모와 수수료율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KBS는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본격화되는 2024년 7월부터 청구서 제작, 송달, 수납비용, 아파트지원금, 시스템구축비용 등의 수신료 징수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KBS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연간 360억원 정도로 추산하였음.

- 추가 징수 비용을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와 비교하였을 때, 2023년 결산 기준 1,973억원 대비 18.2%에 해당함.

-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추가 비용의 발생으로 징수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시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하고,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을 준수할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 방송의 필수지정사업자로서 KBS 2TV의 한국수어 방송의 편성비율을 7%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KBS는 「방송법」 제69조제8항·제9항[25] 및 법 시행령 제52조[26]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27]에 따라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로서, 폐쇄자막 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KBS는 「한국방송공사 2023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1TV와 2TV를 합한 전체 채널을 기준으로 폐쇄자막방송 100%,

25)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이하 각 호 생략)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의 기준을 초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음.[28)]

- 이러한 전체 채널을 기준으로 한다면, KBS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을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각각의 채널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2TV는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이 2021년 3.2%, 2022년 3.9%, 2023년 4.2%로, 기준치인 7%에 미달하는 수준임.

<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2021～2023년) >

(단위: 분, %)

년도	채널	전체 방송시간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편성시간	편성비율	편성시간	편성비율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1	1TV	509,915	494,145	100.0	49,090	10.1	120,155	24.1
	2TV	463,240	456,850	100.0	69,985	15.5	14,550	3.2
	전체	973,155	950,995	100.0	119,075	12.7	134,705	14.1
2022	1TV	509,905	495,400	100.0	52,235	10.7	118,605	23.8
	2TV	460,010	459,885	100.0	72,520	15.9	15,070	3.9
	전체	969,915	955,285	100.0	124,755	13.2	133,675	13.9
2023	1TV	509,280	503,865	100.0	60,390	12.3	122,870	24.4
	2TV	458,510	456,160	100.0	60,235	13.3	19215	4.2
	전체	967,790	960,025	100.0	120,625	12.8	142,085	14.8

자료: 한국방송공사 2023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p.205.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의무방송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MBC나 이외 지상파사업자, 종편·보도PP의 경우에도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이 7%이고,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4%임.

28) 「한국방송공사 2023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pp.204～205.

<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의무방송 편성비율 >

필수지정사업자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KBS	100%	10%	7%
MBC	100%	10%	7%
이 외 지상파사업자	100%	10%	7%
위성방송사업자	70%	7%	4%
종편·보도PP	100%	10%	7%

○ 이러한 기준을 볼 때, KBS 2TV 역시 MBC 등 다른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PP와 유사한 수준인 7%를 기준으로 한국수어방송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 방송의 필수지정사업자로서 KBS 2TV의 한국수어방송의 편성비율을 7%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 개선 필요

ㅇ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9]에 따라 KBS는 장애인고용의 법정의무가 있고, 동 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을 고려한 KBS의 법정고용의무 비율은 3.1%이며, 2023년 기준 인원은 140명에 해당함.

ㅇ 그런데, KBS는 「한국방송공사 2023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장애인 고용은 90명, 장애인 고용율은 1.99%로, 법정의무 140명, 3.1%보다 50명, 1.11%p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및 고용 현황 >

구 분	법정의무	KBS 고용현황	미달 현황
고용율	3.1%	1.99%	△1.11%p
인원	140명	90명	△50명

ㅇ 이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2023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는 "KBS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애인 고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검토 중임. 다만, 미디어 산업 특성상 장애인 적합 직무가 많지 않아 공개채용 시 장애인 지원자의 지원율이 저조하고, 공사 인건비 절감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가 많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2023 장애인 통계」[30]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산업별로 나누었을 때, 20개 분야 중 KBS보다 장애인고용율이 낮은 분야는 건설업(1.89%), 금융 및 보험업(1.83%), 국제 및 외국기관(1.34%) 3분야에 불과함.[31]

○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장애인 통계」, p.92.

31) 전체 2.9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66%)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3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26%), 부동산업(3.5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44%), 운수 및 창고업(3.36%), 광업(3.1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07%), 정보통신업(2.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4%), 숙박 및 음식점업(2.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46%), 제조업(2.40%), 농업, 임업 및 어업(2.33%), 교육 서비스업(2.31%), 도매 및 소매업(2.24%), 건설업(1.89%), 금융 및 보험업(1.83%), 국제 및 외국기관(1.34%) 순임.

참고자료 1	2022회계연도 KBS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대의견	조치결과
1. 한국방송공사는 경영지표 악화에 대응해 인건비 절감, 자산 매각 등의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 경영진 및 보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부장급 이상 직위자의 급여를 차등적으로 반납하여 위기 극복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 대상 기간 : 2023년 11월 급여부터 반납 시작 (부장급 이상 12월 급여부터 반납) ▪ 직원 역시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일 연차촉진을 시행하여 연차수당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시행일자 : 2023.12.29.) ▪ 회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도 예산에 제작비 긴축, 인력 및 인건비 효율화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한편, ‘경영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인력·조

부대의견	조치결과
	직· 제작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콘텐츠 투자로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영업력 강화 등을 추진하여 광고수입, 콘텐츠판매수입, 협찬수입 등 콘텐츠 관련 수입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KBS는 경영지표 악화에 대응해 불용부동산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공사의 기본재산은 방송법에 의거 이사회의 처분 의결 등의 절차에 의해 매각하게 되어 있으며 송중계소 폐소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시설 휴지 신청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이 가능한 점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진행이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로서 전국을 아우르는 공적 책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에 자산 매각 시에는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부대의견	조치결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필요시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부동산 공개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로 미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 재감정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필요시 예정가 조정,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불용부동산 관할 지역(총)국과는 공조를 강화하여 관내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등 매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편,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분리징수, 미디어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지상파 광고 급감 등으로 인해 KBS 재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수신료, 광고 외에 새로운 신규 재원 확보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인 규제 완화는

부대의견	조치결과
	KBS 자산 활용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현행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등에는 KBS가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KBS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송법 개정(안) 예시 현 행 / 개 정 안 第54條(業務)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 第54條(業務) ①(현행과 같음) 1. ~ 10.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 11.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

부대의견	조치결과
2.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의 투입이 공영방송 존속의 유일한 중장기 대책입니다. 높은 공영성·공정성을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공적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방송의 양적·질적 쇠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 2024년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사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신료 분리징수가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수입 감소액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전대미문의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KBS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비상긴축 경영계획>을 실시하여 고강도 자구노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임원과 부장급 이상의 보직자들에 대한 임금 반납, 연차촉진 전일제 시행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방안을 실시하고, 선택

부대의견	조치결과
	과 집중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 신규 채용 중단 등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자구노력을 실시할 것입니다. ▪ 또한, ‘경영위기극복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산 활용 및 사업·인력·조직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적자 폭 축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을 수행하겠습니다. 직급 및 승진체계 개선을 통한 인력 효율화, 직제개편을 통한 업무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 프로그램 제작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을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 KBS의 장기적인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킬러 콘텐츠 제작을 통한, 광고 및 콘텐츠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한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글로벌 OTT와 적극적인 파트너십 강화, 텐트폴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통한 KBS 로열시청자들에게 서비스 강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한 제작인력을 확보하고, 공사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입

부대의견	조치결과
	원을 창출하겠습니다. ▪ 콘텐츠판매수입과 광고 수입 외에도 협찬/캠페인 수입, 기타사업 및 사업외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수신료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단기 자구노력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를 극복하고 공영미디어의 역할과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 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수입감소의 여파에 대비하고자 2024년 다음과 같은 인건비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과거 결산심사에서 공사가 지적받은 바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100% 연차촉진을 시행하였습니다. ▪ 집행기관 및 보직자 임금반납을 시행하였으며 연간 약 33억원 가량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신규 채용을 중지 및 정년퇴직 발

부대의견	조치결과
	생으로 약 140억, 특별명예퇴직 시행(현재 미시행) 및 일반퇴직 등 기타 퇴직 인건비 감소는 약 160억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인력 감소 등을 반영하여 약 130억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1997~1998년 IMF 위기 시 10% 수준의 임금반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 바 있으므로 수신료 분리징수로 수입 감소가 현실화될 시 경영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합의 등을 통해 임금삭감과 인력 효율화 추진을 통해 추가적인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4. 한국방송공사는 본격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을 위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 공사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2023.7.12.)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주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양 기관은 앞으로 관리사무소의 수신료 납부대행 근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

부대의견	조치결과
	력하고, 수신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주택 주거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3.11.29. 협의 실시 이후 총 6회 실시
5. **한국방송공사는 재정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신료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	▪ 공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한전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2024.1월말까지 임시 조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수신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 공사는 분리고지로 인한 비용 발생을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인 징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한전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기본 입장이 상호간 합리적으로 조율되어 분리고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공사는 수신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T 청구(이메일, 모바일) 변경 프로모션, 수신료 고지서 이용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부대의견	조치결과
	갈 예정입니다.
6. 한국방송공사는 IPTV 등 유료 방송 가입자 및 OTT 서비스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방송 환경 변화 및 수신료 분리 징수와 방송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발생할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원으로써 콘텐츠 판매 등 기타방송사업수입의 증가 방안을 마련한다.	▪ KBS는 콘텐츠 사업의 유통 다각화를 통한 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드라마 <가슴이 뛴다>, <혼례대첩>에 예산투자를 통해 100% 사업권리를 확보하고 각각 글로벌 OTT Amazon Prime과 일본, 동남아 등 권역별 OTT에 전략적으로 분할 판매하여 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향후 제작비 상승에 따른 권리유출·유료 TV VOD 이용률 감소 등 역성장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드라마 텐트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권리확보를 통해 해외시장을 공략하여 콘텐츠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소규모 자본금으로 추진 가능한 다수의 신사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여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공사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기타방송수입 창출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라디오 역시 AI 스피커를 운영하

부대의견	조치결과
	는 통신사 등에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공사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광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도 라디오 콘텐츠를 노출해 도달률과 수익 역시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7. 한국방송공사는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매출채권 회수 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회수 방안을 검토한다.	▪ 공사가 보유중인 매출채권은 대부분 당해연도 중 거래가 발생한 단기성 매출채권으로 해당 채권은 대부분 1년 이내에 회수가 완료되며, 2022년 말 매출채권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IPTV 재송신대가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은 전체 매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말 기준 0.2%로 미미하며, 해당 채권에 대해 이미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 공사는 주기적으로 미결채권을 정리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

부대의견	조치결과
	라 해당 부서에서는 채권 회수절차(독촉, 채권추심, 압류 등)을 진행하고,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는 등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 한국방송공사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 보장 및 연가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된 바 있는 국회 부대의견의 미반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차 사용촉진제도 및 연가저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 퇴직자 급증에 따른 신규 인력 미충원으로 제작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코로나19관련 재난방송체제 유지 및 비상대기로 인한 휴가 사용 촉구 곤란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체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연가저축제도는 관리자가 휴가의 이월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과 타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 확대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형자산의 종류, 금	▪ 현재 KBS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형자산 종류 및 금액 현황은 다

<table>
<tr><th>부대의견</th><th>조치결과</th></tr>
<tr><td>액, 지난 10년간 매각한 유형자산 현황 및 향후 유형자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td><td>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회계연도</th><th>2022년</th><th>비고</th></tr>
<tr><th colspan="2">과목</th><th>금액(백만원)</th><th></th></tr>
<tr><td rowspan="3">부동산</td><td>토지</td><td>2,945,370</td><td>공시지가 기준</td></tr>
<tr><td>건물</td><td>268,277</td><td rowspan="5">장부가액 기준</td></tr>
<tr><td>구축물</td><td>14,697</td></tr>
<tr><td rowspan="3">동산</td><td>기계장치</td><td>95,901</td></tr>
<tr><td>차량운반구</td><td>429</td></tr>
<tr><td>비품 등</td><td>5,342</td></tr>
</table>

▪ 또한 지난 10년간 매각한 유형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연도</th><th>매각 종류 및 건수</th><th>매각금액
(백만원)</th></tr>
<tr><td>2013</td><td>폐소 송중계소 外 11건</td><td>1,041</td></tr>
<tr><td>2014</td><td>폐소 송중계소 外 9건</td><td>25,956</td></tr>
<tr><td>2015</td><td>폐소 송중계소 外 9건</td><td>10,819</td></tr>
<tr><td>2016</td><td>폐소 송중계소 外 12건</td><td>9,604</td></tr>
<tr><td>2017</td><td>폐소 송중계소 外 6건</td><td>31,172</td></tr>
<tr><td>2018</td><td>폐소 송중계소 外 7건</td><td>8,262</td></tr>
<tr><td>2019</td><td>폐소 송중계소 外 8건</td><td>65,227</td></tr>
<tr><td>2020</td><td>폐소 송중계소 外 9건</td><td>49,881</td></tr>
<tr><td>2021</td><td>폐소 송중계소 外 3건</td><td>3,716</td></tr>
<tr><td>2022</td><td>폐소 송중계소 外 4건</td><td>3,996</td></tr>
<tr><td>합계</td><td>폐소 송중계소 外 78건</td><td>209,674</td></tr>
</table>

▪ 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소 승인 후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 추진한 것 중에서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중계소에 대해 매각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td></tr>
</table>

부대의견	조치결과
	▪ 해당 중계소는 2019년도 이후 공개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곳입니다. 공사의 기본재산은 방송법에 의거 이사회의 처분 의결 등의 절차에 의해 매각하게 되어 있으며, 추후 공사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매각 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한국방송공사는 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	▪ 공사 보유 골프회원권(88cc)은 광고 판촉업무(프로그램 및 매체 홍보) 목적으로 광고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회원권 명의는 광고국 보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 광고 판촉행사 상세 내역(일자, 외부 참석자 등)은 공사 영업 정보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정보까지 노출하는 것으로서 여러 매체간 경쟁 환경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22년 광고국 직위별 골프회원권 이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2년도 골프회원권(88cc) 이용 현황

<table>
<tr><th>부대의견</th><th>조치결과</th></tr>
<tr><td></td><td>
<table>
<tr><th rowspan="2">판촉행사 총횟수</th><th colspan="4">직위별 이용 횟수</th></tr>
<tr><th>광고국장</th><th>광고국 부장</th><th>광고국 팀장</th><th>광고국 직원</th></tr>
<tr><td>22회</td><td>17회</td><td>17회</td><td>2회</td><td>5회</td></tr>
</table>
</td></tr>
<tr><td>11. 한국방송공사는 프로그램 제작진, 출연자 등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경은 한국방송공사의 공정성 및 수신료 납부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수입 감소 등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td><td>▪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미증유의 재정 적자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사는 당면한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조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 등을 선제적으로 교체한 것은 공사가 올해 방송지표로 삼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제작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체질 개선을 통해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습니다.

▪ 다만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변경이 일부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과정과 필요성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 같은 조</td></tr>
</table>

부대의견	조치결과
	처가 공사의 수입 감소 등 경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한국방송공사는 제작진, 진행자, 출연자에 관한 KBS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준수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한국방송공사는 '더 라이브'와 같은 방송의 폐지로 인하여 시청률의 변동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청률과 광고수익 변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 공사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예상되는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편성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각종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편성 전략적 판단을 수행함으로써 재정 위기 상황 속 재원의 유효적절한 활용을 꾀하는 동시에 광고 수익 등 콘텐츠 수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편성 조정의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TV <더 라이브>는 화제성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구 시청률은 물론 실질적 수익을 가져올 수

부대의견	조치결과
	있는 화제성 높은 콘텐츠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편성 삭제를 통해 마련한 시간대는 신규 콘텐츠의 초기 흥행을 위해 재방송 혹은 특집 콘텐츠를 편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더 라이브>가 삭제된 시간에 <고려 거란 전쟁>과 <골든걸스> 재방송 등을 편성하여 본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앞으로도 공사는 프로그램 성과를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인 편성과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비 운용은 물론, 킬러콘텐츠 투자를 통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정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13. 한국방송공사는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 공사는 최소비용으로 대외방송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 예산안 심의 및 결정기관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설명해왔습니다.

부대의견	조치결과
	▪ 공사는 정부와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시 문제점 및 대외방송의 효과 등을 포함한 성과분석 내역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 지원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 예산 삭감시 발생할 리스크와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의 기여도를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 설득을 통해 주무부서 및 기재부 등 정부의 이해를 얻고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 한국방송공사는 특파원 내정자의 발령을 갑자기 취소하여 계약파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같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파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취재력을 살릴 수 있는 효율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 공사 보도본부 특파원 미발령자 6명 가운데 현지 주택 계약 등으로 비용이 발생한 일부 인원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라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해외지국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제뉴스 보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조치결과
15. 한국방송공사는 KBS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 KBS는 방송법 제4조에 따라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편성책임자로 편성본부장을 선임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는 신규 콘텐츠의 초기 흥행을 위한 전략적 편성의 결과였으며, 이는 편성의 최종책임자인 편성본부장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TV <더 라이브>는 화제성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폐지는 수신료 분리징수 실시로 예상되는 공사의 재정 위기 대응 차원의 편성 행위입니다. ▪ 공사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KBS는 편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해 콘텐츠 토털 리뷰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제작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영향력과 공영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을 이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법 제4조에 보장된 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편성권입니다. 일부의 문제제기는 방송법 제4조를 잘

부대의견	조치결과
	못 이해한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사는 방송법 및 공사 규정 등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해 내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시에도 방송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	KBS 현황(2023년 기준)

임 무

□ KBS 설립목적(방송법 제43조)

○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인 실시

□ KBS 공적책임(방송법 제44조)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노력

○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

○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

○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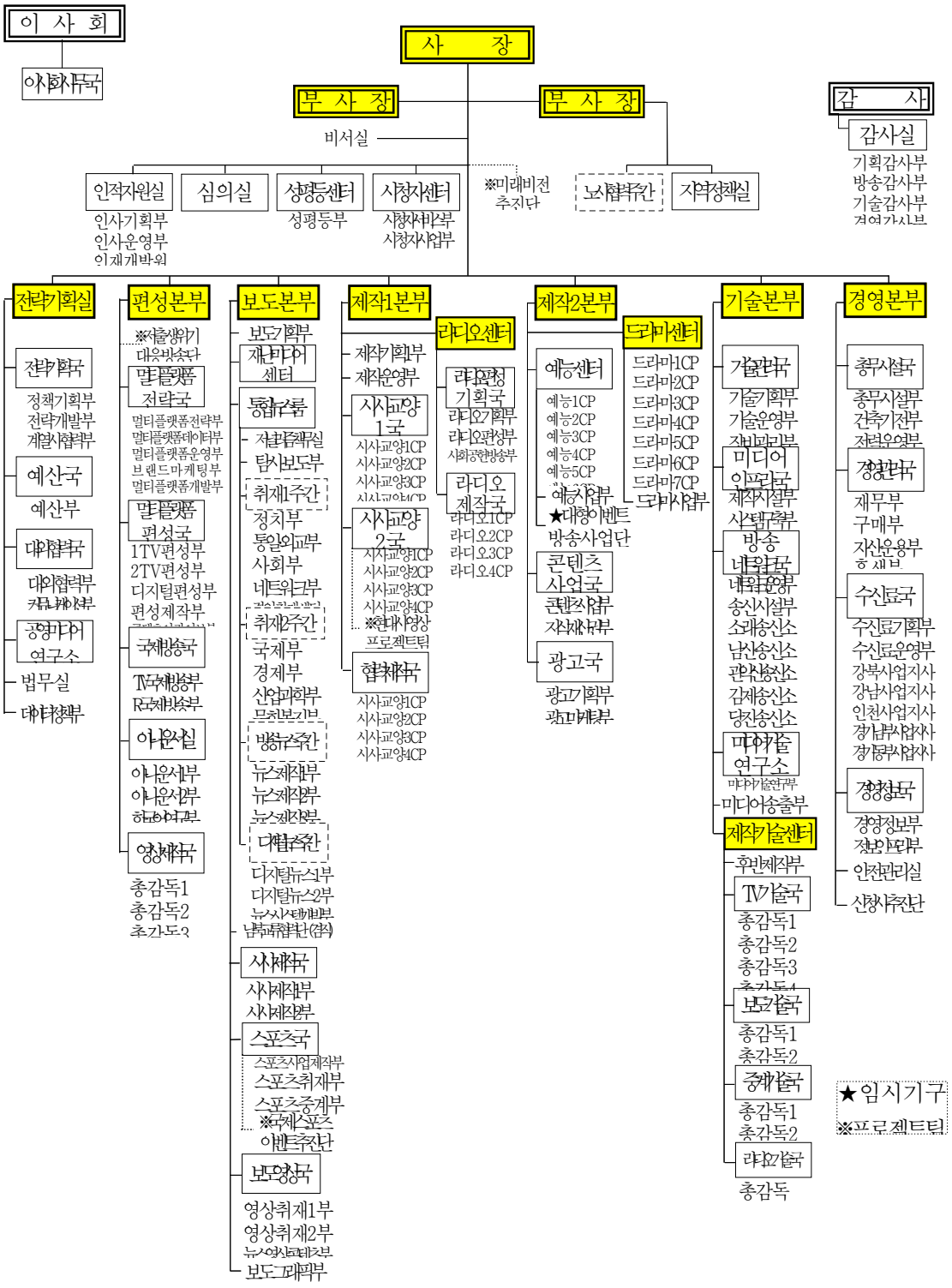
- ㅇ 1927 라디오 방송 개시(JODK)
- ㅇ 1947 ITU에서 한국에 호출부호 ‘HL’ 할당, KBS (중앙방송국) 출범
- ㅇ 1948 국영방송 발족
- ㅇ 1961 텔레비전방송 개국
- ㅇ 197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 (공영방송 출범)
- ㅇ 1980 텔레비전 컬러방송 시작, 광고방송 실시
- ㅇ 1985 음성다중방송 실시
- ㅇ 1986 아시안게임 주관방송 실시
- ㅇ 1988 서울올림픽 주관방송 실시
- ㅇ 1990 KBS방송강령 제정
- ㅇ 1994 수신료징수제도 개선(한전 위탁징수), 1TV 광고 폐지
- ㅇ 1995 인터넷 방송 개시
- ㅇ 1997 제34차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ABU) 서울총회 개최
- ㅇ 2000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개국, 2라디오 FM방송 개시
- ㅇ 2001 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
- ㅇ 2002 한·일 월드컵 공식 방송 실시, 부산 아시안게임 주관방송 실시
- ㅇ 2003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개국, KBS 윤리강령 제정
- ㅇ 2004 지역국 기능 조정(9총국 9지역국으로 개편)
- ㅇ 2005 APEC 2005 Korea 주관 방송 실시, KBS 지상파 DMB <U KBS> 개국
- ㅇ 2006 MMS(멀티모드서비스) 시험방송
- ㅇ 2007 지상파 DMB 전국방송실시, 세계공영방송총회 개최
- ㅇ 2010 G20 서울정상회의 주관 방송 실시
- ㅇ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3D 중계방송
- ㅇ 2012 여수엑스포 주관방송 실시
- ㅇ 2013 국제방송 개국 60주년, KBS월드 개국 10주년

ㅇ 2014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주관방송, ITU 전권회의 주관방송,
WORLD 24 해외서비스 출범
ㅇ 2015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송기록물로는 세계2번째)
ㅇ 2016 지상파 UHD 방송사업 허가 취득
ㅇ 2017 세계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ㅇ 2018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사
ㅇ 2019 지상파UHD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 및 시연
<KBS 방송 편성규약> 개정
ㅇ 2020 '코로나19' 비상방송체제 가동
'만삭의 위안부' 영상 첫 발굴
ㅇ 2021 제주 UHD TV 방송국 개국
ㅇ 2022 <연모>, 한국드라마 최초 국제 에미상 수상
ㅇ 2023 공사창립 50주년

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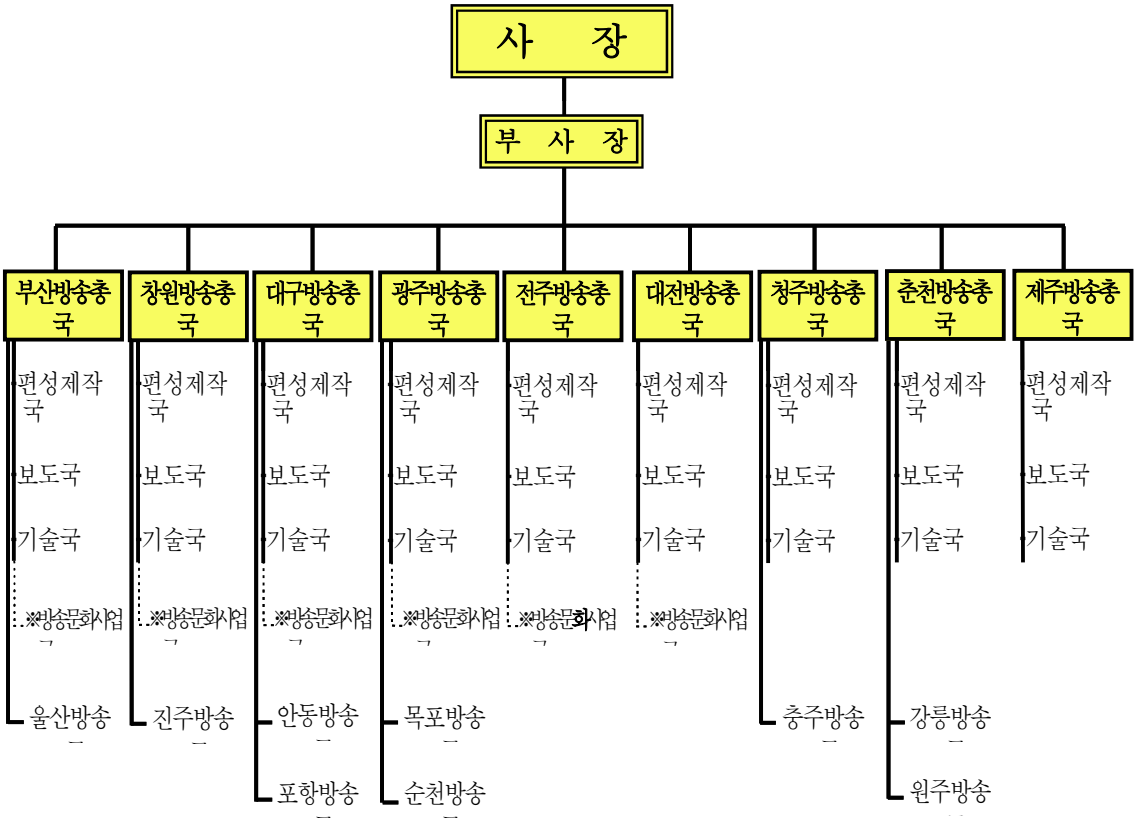
<본사> 6본부 1실 3센터 46국

(2024. 6. 10. 기준)



<지역> 9총국, 9지역국

(2021.12.30. 기준)



인 원

(2024.07.31. 기준 /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집행기관 계)	(12)	(9)	
사 장	1	1	
감 사	1	1	
부 사 장	2	1	
본 부 장	8	6	
(일반직 계)	(5,248)		
(책임직급 계)	(763)	(645)	
M1직급	763	59	
M2직급		183	
M3직급		403	
(실무직급 계)	(4,485)	(3,176)	
G0직급	109	49	
G1직급	1,734	1,124	
G2직급		384	
G3직급	1,992	699	
G4직급		559	
G5직급		109	
G6직급	650	79	
G7직급		173	
촉 탁 직	32	6	
방송음악직	54	29	
수습직원	-	-	
합 계	-	3,865	

예 산

□ 2024년도 예산

(단위 : 억 원)

수 입		비 용	
수 신 료	4,407	사업경비	7,835
광 고 료	2,580	판매수수료 및 법정지원금	1,554
콘텐츠판매	3,801	인건비	3,852
국고금수입	100	감가상각비	505
협찬/캠페인	852	사업외비용	135
시청자사업수입	124	예비비	
사업외수입	328	법인세비용	
기타	258		
합 계	12,450	합 계	13,881
		당기순이익	−1,431

※ 최근 10년 수지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수입	15,618	15,943	15,335	14,938	14,758	14,566	14,342	15,082	15,305	14,244
총비용	15,584	15,868	15,087	14,374	15,079	14,550	14,015	14,689	15,423	14,797
손익	34	75	248	564	-321	16	327	393	-118	-553

운영매체현황

(2024. 8. 현재)

□ 방송 매체 현황

▶ TV, RADIO, DMB
▶ 국제 위성방송(KBS WORLD TV, KBS KOREA)

◇ TV (4개)

매체	채널	채널 운영
지상파	1TV(HD/UHD)	보도.시사정보.스포츠.교양
	2TV(HD/UHD)	건전한 가정문화채널 (연예, 오락)

◇ RADIO (7개)

매체	채널 운영	매체	채널 운영
1R	시사·교양 등 종합편성 채널	2FM	재미있고 젊은 예능 음악 채널
2R	한국인의 대중 음악 채널	한민족방송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민족의 중심채널
3R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위한 공익 채널	KBS WORLD R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창
1FM	국내 유일 클래식·국악 전문 채널		

◇ DMB (4개)

U KBS 채널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U KBS 스타★ 1TV 동시전송	U KBS 하트♥ 2TV 동시전송	U KBS 뮤직♬ 2FM 동시전송 + 자체 편성	U KBS 클로버♣ TPEG 서비스

◇ 국제 위성방송

구분	운영 현황
KBS WORLD TV	○ 진입국가 : 전세계 142개국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 확보가구 수 : 1억4천만 가구 (*해외 SO 가입자 기준 추정 범위)
KBS KOREA	○ 진입국가 : 미주, 아시아 등 67개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 해외 한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무료 서비스로 가구수 추정 불가

◇ 기타 (모바일앱)

구분	운영 현황
KBS+[32]	○ 실시간채널 (39채널) : KBS1, KBS2, KBS 지역(10개), KBS N채널(6개), KBS 라디오(7개), KBS NEWS24, KBS WORLD TV 외 모바일 특화채널(2개), KBS WORLD English, KBS WORLD Multilingual ○ 다시보기 : KBS1, KBS2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및 TV클립
Kong	○ 실시간채널 (7채널) : 1R, 2R, 3R, 1FM, 2FM, 한민족방송, KBS WORLD R ○ 다시듣기 : KBS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듣기, 팟캐스트(다운로드) 및 비방송 콘텐츠 팟캐스트 제공

32) KBS+ : KBS와 자회사의 TV, 라디오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OTT(인터넷 스트리밍)서비스로 'myK' 서비스를 23년 9월 'KBS+(플러스)'로 리브랜딩하여 서비스 중임

기본방송시간

(2023. 12. 31. 기준)

구 분		방송시간 (1일 평균)
TV	제 1 T V	23시간 15분
	제 2 T V	20시간 56분
라디오	제 1 라디오	24시간
	제 2 라디오	22시간
	제 3 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21시간
	제 1 F M	24시간
	제 2 F M	24시간
	한민족방송	20시간 (제1방송 기준)
	KBS WORLD Radio	50시간 40분
DMB	U-KBS 스타★(V)	22시간 14분
	U-KBS 하트♥(V)	20시간 21분
	U-KBS 뮤직♬(A)	24시간
	U-KBS 클로버♣(D)	24시간
국제 위성방송	KBS WORLD	24시간
	KBS KOREA	24시간

※ TV, 라디오, DMB(스타, 하트, 뮤직) 개편 기준
※ 제 1·2 FM 방송시간은 수도권 기준으로 작성

기본편성비율

(2023. 12. 31. 기준)

지 상 파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TV	제1TV	30.0	61.3	8.7	9,767분
	제2TV	7.0	34.3	58.7	8,793분
Radio	제1라디오	42.74	52.90	4.36	10,080분
	제2라디오	0.26	61.58	38.16	9,240분
	제3라디오	8.26	68.57	23.17	8,820분

FM음악방송

구 분	국악(%)	서양(%)	가요(%)	팝(%)	합계(주간)
제1FM (고전음악)	8.3	91.7	-	-	10,080분
제2FM (대중음악)	-	-	75	25	10,080분

국 책 방 송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한민족방송	11.34	63.64	25.01	8,400분
KBS World Radio	19.1	42.8	38.1	21,280분

※ 한민족방송은 제1방송 기준

DMB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U-KBS 스타★(V)	28.8	63.6	7.5	9,366분
U-KBS 하트♥(V)	7.2	35.3	57.5	8,573분
U-KBS 뮤직♬(A)	0.26	4.28	95.47	10,080분
U-KBS 클로버♣(D)	-	-	-	10,080분

국제 위성방송

구분	보도(%)	오락(%)	교양(%)	합계(주간)
KBS WORLD	1.2	94.3	4.5	10,080분
KBS KOREA	30.0	8.7	61.3	9,767분

방송시설

(2024. 6. 30. 기준)

□ 방송국

○ 본사 : 1개소(경인센터 별도)

○ 지역 : 18개소(방송총국 9, 지역국 9)

□ 주요시설

○ 본사

구분	시설 개요
TV	TV부조 15(스튜디오 22), 뉴스부조 4(스튜디오 4), 중계부조 2(스튜디오 1), 제작편집실 18(NPS마스터링 6), 주조정실 5(경인 포함), 색보정실 4, SMR 8, KBS 홀 1, 기타 12
라디오	녹음스튜디오 26, 뉴스스튜디오 1, R센터(생방스튜디오) 10, 주조정실 1, KBS아트홀 1, 기타 6
DMB	주조정실 1

○ 전국

구분		방송국	기간국	간이시설	계
방송국		19	-	-	19
송출	TV/FM/DMB	-	34	307	341
	중·단파	-	26	-	26
합계		**19**	**60**	**307**	**386**

KBS 주요 계열사 현황

(2024. 6. 기준)

□ 자회사

회사명	대 표	설립일	자본금	지분율	주요 사업	임직원수
KBS비즈니스	박승규	1989. 4. 1.	9억	KBS 100%	· KBS 시설관리 위탁 스포츠월드 운영	316
KBS미디어	이상우	1991. 9. 1.	36.8억	KBS 86.2% e-KBS 10.8%	· 국내외 KBS 콘텐츠유통	240
KBS아트비전	정철훈	1991.10. 1.	5.2억	KBS 100%	· KBS 방송미술 위탁	181
KBS시큐리티	김승욱	2011. 3. 1.	15억	KBS 100%	· KBS 경비업무 위탁	164
e-KBS	김도엽	2000.12.27.	416.4억	KBS 100%	· 손자회사 출자	2
KGCS문화산업 전문회사	김현기	2008. 4. 7.	100억	KBS 40% 미디어 35% KBSN 25%	· 콘텐츠 투자 펀드	1

□ 손자회사

회사명	대 표	설립일	자본금	지분율	주요 사업	임직원수
KBS N	이강덕	2001. 3. 8.	164억	e-KBS 74.6% 미디어외 17.4% 기타 8.0%	· 방송채널 사용사업	169
몬스터유니온	문보현	2016. 6. 9.	25.7억	e-KBS 70.8% 미디어 19.5% KBSN 9.7%	· 드라마 제작	19
KBS미디어텍	김민중	2009. 9. 1.	8억	e-KBS 100%	· KBS 특수영상, 사운드디자인 위탁	51
KBS America	신경균	2004. 7.15.	270만$	미디어 100%	· 미주지역 채널사업	17
KBS Japan	김 충	2005.10.19.	2.15억¥	미디어 100%	· 일본지역 채널사업	21
KBS콘텐츠SPC	김현기	2015. 5.18.	0.1억	e-KBS 100%	· 콘텐츠 투자 펀드	1